



국제동위원소학회 제9차 학술 심포지움을 돌아보고



김 종 경

한양대학교
원자력시스템공학과 교수

서울에서 직접 영국으로 날아간 것이 아니라, 마침 우크라이나에 일이 있어 하리코프에서 출발하였다. 하리코프에서 키예프로 움직이는 비행기는 완전 구닥다리 비행기로, 영어로 Kiev Aircraft "Repair" Plant 410이라 적혀 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구 소련연방 당시 여객기를 생산했던 나라로서 항공산업은 우리보다 한 수 위였다. – 최초의 소유즈 우주선을 우크라이나에서 제작했으니까) 매우 위태로워 보이는 재생 프로펠러비행기를 타고 키예프로 가서 그 후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스코트랜드의 에딘버러 공항에 도착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서두른 것이, 에딘버러의 호텔에 들어가니 자정이 다 되어 몸은 천근만근이었다.

나는 다음날인 일요일 오전 내내 이메일 체크하느라 분주했다. 그 이유는 이렇다. 당초 서울서 출발하기 얼마 전, 이번 IIS(International Isotope Society: 국제 동위원소학회)와 ICI(International Conference on Isotopes)의 향후 협력방향 모색을 위한 회의를 주관하기 위해 IIS측 주요 인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연락이 제때 오지 않고 뭔가 연락망에 문제가 있어 한국 출발 마지막까지 회의 Agenda

나 회의 시간 및 장소 등이 최종 확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Ms. Susan Alexander가 IIS의 모든 역사를 알고 있는 IIS설립의 제안자인데 그 분이 몸이 좋지 않아 병원신세를 지고 있는 상태 였던 이유였다. 어쨌든 IIS의 몇몇과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이메일을 주고받고 했는데, 우크라이나에 가보니 이메일 사용하기가 옛날 우리나라 1960년대 백색전화 쓰기보다 힘들었다. 우크라이나에서 빠져나와 푸랑크푸르트 공항에 가서야 비로소 가뭄 중에 물 만난듯 다시 연락이 시작되었고, 게다가 지구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들은 낮밤이 바뀌어서, 어떤 사람은 비행기



6ICI 홍보코너를 배경으로

탑승 중에 있으므로 연락이 두절되었고 하여 몹시 애를 먹고 있던 터였기 때문이다.

일요일 점심을 겸한 IIS Board of Trusty Meeting에서 IIS-ICI간 협의 의제가 다루어지게 되어 있었지만, 난 참가할 입장이 아니었다. 우선 저녁 환영연(Welcome Reception)에서 Dr. Stevenson과 Dr. Brown을 만나기로 했다. 그러던 중 오후 2시 반쯤 이명철 6ICI 조직위원장과 MECI(국제행사 대행업체)의 김분희 사장 그리고 김지미 담당 팀장이 속속 현지에 도착했다. 오후 4시쯤 Symposium장소인 Edinburgh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re에 이 위원장과 들려보니, MECI 우리 팀이 열심히 홍보자료설치에 열중이었다. 위치는 입구쪽으로 아주 명당자리였다. 마침 이



MECI측의 홍보활동 모습

번 에딘버러 심포지움 조직위원장인 Dr. Ken Lawrie가 장시간 회의(IIS-ICI관련 내용이 주된 이슈가 되어 무려 4시간의 긴 회의를 했다고 했다.)를 마치고 나온 터라 붙잡고 IIS측 주요 인사들과의 접촉을 시도하였다. 저녁 환영연에서 5명의 IIS측 Delegates를 접촉하였다.

결국 이틀 후 우리 ICI측은 나와 이 위원장 그리고 Dr. N. Ramamoorthy (IAEA, 6ICI-IMSC),

Dr. Nigel Stevenson (USA, 6ICI-IMSC), Dr. Valentine D. Borisevich (Russia, 6ICI-IMSC)를 포함한 5인과 IIS측 Dr. Ken Lawrie(UK, 2006 Edinburgh Mtg. 조직위원장), Dr. Brad D. Maxwell (USA, 2009 Chicago Mtg. Organizer), Dr. John W. Kennington (USA, 2009 Chicago Mtg. Organizer), Dr. Gary A. Rotert (USA, 2009 Chicago Mtg. Organizer), Dr. Darren Brown(USA, IIS Board of Trustee Member)의 5인이 참석하는 총 10인 회의를 개최하였다. 수 년동안 그렇게 오래 끌어오던 IIS-ICI 협력방안논의가 의외로 여러가지 합의점을 찾으면서 쉽게 풀렸다. 기분좋게 회의를 마친 후 이 위원장이 회의 참석자 모두를 초청하여 정말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저녁 만찬시간을 가졌다.



IIS-ICI협력회의 후 기념촬영

월요일 아침, 스탠포드대학 화학과 Dr. Justin Du Bois의 개회세션 초청강연을 시작으로 학회 정식행사가 시작되었다. IIS President의 환영사 없이 조직위원장인 Dr. Lawrie의 인사말로 시작한 이 행사의 등록인원수는 370 여명 그러나, 그나마 전시업체 관련 직원들의 등록을 빼고 나니, 실제 참여자는 2백여명 정

도였지 싶었다. 논문은 고작 200편정도 발표되었고, 참가국은 약25개국, 전시업체는 22개 회사/기관이었다.

처음으로 이번 학술대회에서 IIS-ICI 합동 세션("Production and Applications of Isotopes")이 구성되어 운영되었는데, 33편의 논문(전체의 약 15%)이 접수되었다. 아쉬운 점은 한국을 포함 여러 명이 구두세션에 사전 통고없이 "No Show"였다. 결국 합동세션 3개가 2개로 줄여져 운영되었다. 나와 Dr. Brown, 그리고 Dr. Stevenson이 좌장을 맡았다. 세션 마지막에는 미리 제작해간 6ICI 홍보물이 상영되었고 이어서 이명철 조직위원장의 근사한 인사말로 세션을 잘 마무리했다.

이 와중에 바쁜사람이 한명 더 있었는데, 원자력연구소의 최선주박사였다. 김영진 ICI Scientific Program 위원회 위원장 대신 참석한 터라, 받아온 숙제를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돌아와 이것저것 챙겨온 프로그램 관련 정보와 아이디어는 잘 정리되어 조직위원회에 서면보고 되었다. 어쨌든, IIS-9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학술대회 기간중 MECI 김사장과 김팀장이 열심히 나누어준 6ICI First Flyer와 태극무늬의 부채를 들고 다니는 모습에서 한국인의 극성스러움이 묻어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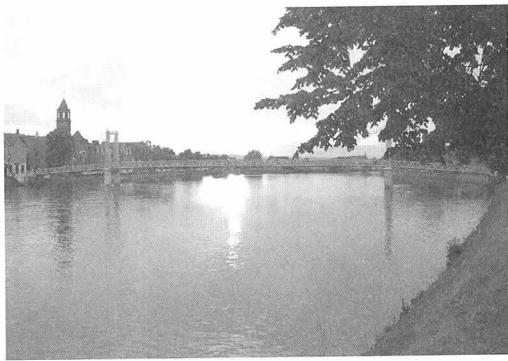
에딘버러는 스코틀랜드의 수도이다. 에딘버러성을 보고 있노라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이기도 하지만, 난공불락의 요새이기도 하다. 웅장하고 까마득히 깎아지른 절벽위에 어마어마한 성을 구축해 놓았다. 성 아래 바깥에는 성 둘레를 따라 아름다운 휴식공원을 조성해 놓았다. 여담하나를 소개하자면, 하루는 점심시간에 산보한다고 그 공원을 이명철 위원장과 겨눴었다. 벤치에 앉아 쉬다 사진기를



에딘버러성 전경

그냥 의자에 놓고 자리를 떴다. 다시 한참을 걷다가 생각이 나서 다시 그곳에 가보니 그 많은 사람들이 앉았다 일어서곤 하는 와중에도 내 사진기는 그냥 그 자리에 원래의 빼딱한 위치로 놓여 있었다. 그 사람들을 잠시나마 의심한 내 자신의 미안한 마음이 후끈 달아올랐다. 에딘버러성 내부를 들어가면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다. 스코티시는 브리티시를 300년 이상 미워(?)하며 살고 있다. 브리티시는 스코티시를 무식하고 격이 떨어지는 민족으로, 반대로 스코티시는 브리티시를 매우 무례하며 우월주의로 가득한 민족으로, 각각의 서로 보는 시각이 매우 큰 듯했다. 스코티시의 백파이프 음악을 들고 있으면 어딘가 슬픈 민족의 정서가 가득하다. 과거 브리티시들의 잦은 침공에 엉겅퀴풀(Thistle)의 날카로운 가시가 공격을 지연시키고 스코티시를 구해주었다 하여 엉겅퀴는 오늘날 스코틀랜드의 국화가 되었다고 한다.

학회를 마치고 1박 2일 스코틀랜드 북쪽을 돌아보기로 했다. 우리를 안내한 분은 1997년 장로교 본산지인 스코틀랜드로 역 선교의 임무를 띠고 왔던 던휩린(에딘버러 바로 이전의 스코틀랜드 수도)에 거주하는 김위식목사였



인버네스시를 가로지르는 강가의 모습

다. 북쪽 하이랜드를 향하여 달리는 차속에서 보는 전원과 자연의 풍경은 그 곳만의 독특한 인상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그곳은 양의 나라이다. 다음은 김목사의 얘기다. “양은 죽어서 털은 캐시미어로, 가죽은 코트 만드는 공장으로, 살코기는 식단으로, 나머지 뼈는 본차이나 도자기공장으로 가니 양이야 말로 진정한 희생양 아니냐”는 것이다. 김목사는 우리 일행을 스코트랜드 북쪽 끝 도시 인버네스까지 데리고 갔다.

그곳의 저녁노을은 적막하고 조용하며 고즈넉했다. 기온이 매우 선선한 것이 북극쪽에 상당히 다가서 있다는 것을 느꼈다. 밤 11시쯤 돼야 해가 완전히 지고 새벽 3시 반이면 하늘이 다시 흰해진다. 그곳 인근에 네스호가 있다. 그래서인지 그곳의 많은 지명이나 상호명 끝에 “네스”라는 말이 많이 붙어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네스호에 네스라는 괴물이 살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어서인지 관광객이라곤 겨우 일본관광객 한 팀을 볼 수 있었다. 그 곳 하이랜드 지방이 워낙 고지대(우리나라 강원도지방 같은 곳) 인지라 네스호는 깊은 산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지에 있는듯 느껴졌고 가늘고 긴 고구마 모양의 호수 주변을 따라 도로가 형성되어있어 별도로 호수를 찾아 산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

약 40분간 호수를 끼고 남으로 차를 타고 달렸다. 오방이라는 고기잡이 포구에 들러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배불리 해물요리 먹고는 다시 남으로 남으로 내려왔다. 이번 여행을 통해 한 가지 배웠는데, 스코트랜드의 위스키종류는 117가지이며 그 중, 하이랜드와 스파이사이드지방 위스키가 특히 좋으며, 싱글몰트(100% 보리 주정)가 최고라고 했다. 국내 시판되는 많은 위스키는 옥수수주정과 혼합한 Blended Whiskey인 셈이며, 하물며 로얄씨루트와 발랜타인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하니 우리가 진품을 모르고 술을 즐겨 마신 것 아닌가 싶다. 에딘버러성 밑 작은 위스키집에 들렸다. 역사가 350년 되었다하니 미국역사보다 오래 된 집이었다. 의자는 옛날 그대로 너무 작아 앉기가 불편한 정도였지만, 위스키도 양식처럼 순서대로 먹어야한다며 처음 내놓은 것이 Darwhiney라는 아주 부드러운 위스키였는데 지금도 그 맛이 아련하다. KRIA